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4호 [무게 제25763호] 주제 106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천백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위대한 승리를 더욱 빛내여나가자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시, 군들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 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가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은 당의 령도따라 최강국의 존엄을 또다시 떨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천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위대한 승리를 더욱 빛내여나가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로 새지게 끌어안고있었다.

개천, 구성시, 고원, 태탄군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예고하는 주체혁명투쟁의 장엄한 피정은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분신이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이 어떻게 사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해 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불가침적위협을 단행에 펼쳐주고 주체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과 천만년미래를 약속하는 당의 령도따라 최강국의 존엄을 안고있음을 보여준 특대사건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불가침적위협을 단행에 펼쳐주고 주체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과 천만년미래를 약속하는 당의 령도따라 최강국의 존엄을 안고있음을 보여준 특대사건이라고 말하였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제재와 압박을 다하였지만 우리는 자제와 기술로 조강조덕발력을 가진 다행된 핵무기를 마음껏 내내 대항할 만능을 낼수 있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핵보급을 틀어쥐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병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온 반제국주의전쟁을 총진시키고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전을 향하여 총돌격, 총대진해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군함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연설자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뼈에 새기고 전진단검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해 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공이라도 올렸한다면 삼악과 같이 펼쳐어나 침략자, 도발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만드시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천년들이 정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새겨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건설장들에 용약 달려나가 선군시대 청년동지정신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앞당겨서 열어세워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심지언군, 대홍단, 백암, 시흥, 용진군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오늘을 축조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높이 울리며 농업근로자들은 과학농사방법을 세차게 일으키고 다수확을 동을 힘있게 벌며 쌀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계성시, 막진, 명간군 등의 군민경축대회장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으로 굳게 뭉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천기를 들고 항복서를 바칠 때까지 반제반미대결전을 끝까지 벌려나갈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의 불같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의 정수리를 내리친 통쾌한 불벼락이며 《사회주의전진기》를 높이 부르며 최후승리의 령명을 향하여 폭풍노도쳐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자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동지

친근한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년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지난 69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끊임없는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평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추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의 전통적인 친선과 단결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당신께서 진강하실것과 아울러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 분양위라짚

2017년 9월 8일

### 《김정일전집》 제18권 출판

로작물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리더 모시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확고히 세우며 혁명적전진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적국면을 열어나감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적기개를 이끌어 주신 내용들이 집대성되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수령이 배울여주는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이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라》에 《혁명가들은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것은 정치적생명이며 혁명가는 마땅히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진실로 믿고 따르며 사상적수양을 꾸준히 쌓아나감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당의 혁명적정신을 견결히 옹호하고수행하며 혁명적전진과 혁명사적지침을 잘 꾸리고 그들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들이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탐사를 목적으로 작성한 혁명적기개》에 담겨 있다.

《삼지연못가를 돌아보면서》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의지를 침범하는 대가벌비건립사업에 큰 힘을 보아야 한다》를 비롯한 로작물에 제시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정치일군들을 키워내야 한다》, 《북한보전투승리 35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지휘관들과 한 담화》, 《부대정치위원의 임무》 등의 로작물에서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품없이 충직한 혁명적사로 준비시키며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기계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임업기계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질 좋은 목심판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검정복도 길주군 병력

활동능장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를 비롯한 로작물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분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마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를 담은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사상리론이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문학예술부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적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여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예술공연을 통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자》, 《새로운 혁명가극을 많이 창조하자》 등의 로작물에 반영되어있다.

《4.25체육선수단을 내출대 대하여》, 《4.25체육선수단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수령을 발전시켜야 한다》, 《권투에 힘을 보아야 한다》, 《체육기술을 높이며 경기심판을 공정하게 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물에는 체육부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든든히 세우며 나라의 체육을 빨리 발전시켜나감에 대한 사상이 명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백두의 협동을 이어 낚초원 혁명과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격렬히 투쟁하자》 등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원리 밝혀주시었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혁명정통교양도시출판사업에 힘을 날음데 대한 문제, 풍, 인민간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 불꽃이 사회주의전진에서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뚜렷한 해답을 주는 로작들이 들어있다.

《김정일전집》 제18권에 수록된 로작물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지역사장의 만리마대전진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리론적기개가 담겨 있다.

【조선중앙통신】



















